

제4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한글 학교	빈대학교 University of Vienna	성명 성명	한글 영문	밀레나 노비 Milena Novy	생년월일 1996년 5월 3일	학년 3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“모름 조금 평등어 보이는데 무슨
 일이 있어?”
 선생님이 나에게 하신 말이 한마디 들
 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. 눈물이
 흘러 내렸다. 그 순간까지 쌓여 있
 던 힘은 순간들의 기억과 감정이 떠
 오기 때문이었다. 나는 교학생으로
 한 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혼자서
 라에사사는 제 생각보다 힘들었다.
 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다. 한국
 맥이 부족해서 친구를 사귀기도
 어려웠다.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
 고생해서 슬프기도 했다. 그런데
 게 관찮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
 으니 계속 참고 묻지도 못했다. 선
 생님이 나에게 믿어 주셨던
 그 순간까지. 그 때는 어디에
 리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스트레스
 고 걱정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
 다. 선생님이 잔뜩 웃어 주셨다.
 그래서 그 날에 헤어지고 집
 을 떠났을 때
 는 마음이 정말 가벼웠다. 선
 생님에게 다는 사
 도와 주는 사람이 되고 싶
 다.

제4회
야구
성인
그룹
배틀

학번	이름	학과	교과명	담당교수	교과목명	교과번호
080607	김민서	경영학부	조직행위론	김대환교수	University of Vienna	1996년 5월 3일

[illegible]

10/10/10

제4회
야경
성공
한
배인자

이름	김하민	학번	20211454	생년월일	1996년 5월 3일
학교	University of Vienna	과목	Mitena 609y	학년	3

을 보 고 나 를 그 언 데 또 개 당 은 것 은 까
 바 거 쟁 된 다 . 나 처 럼 무 서 워 한 다 는 것 이
 다 . 그 리 고 우 리 누 스 로 아 무 기 약 하 고
 잘 못 된 사 감 이 라 고 생 각 하 더 라 도 서
 조 이 래 해 주 고 위 로 해 죽 고 격 려 해
 죽 면 강 한 사 감 이 될 지 도 모 른 다 . 그 래
 서 앞 으 로 하 는 사 감 이 마 음 의 모 습 그
 대 조 반 아 드 리 고 사 랑 하 고 도 와 줄 사
 감 이 되 도 록 물 어 보 는 사 랑 이 되 겠 다 . 톨
 관 찰 나 고 하 는 삶 은 힘 드 니 까 , 함 께 하 는 삶
 자 하 는 가 장 아 름 다 운 삶 이 니 까 .